

# 슬픔과 아픔 감싸안은 따뜻한 이야기의 힘

연극배우 최인경씨가 뽑은 장 자크 쌍페의 《라울 따뵐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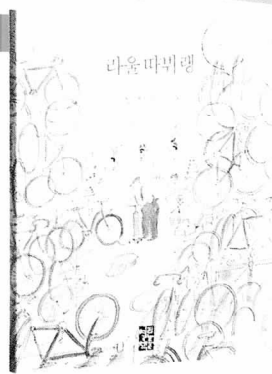
세월이 흐른 뒤 진실의 거울을 발견한 백설공주는 거울에게 이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 거울은 백설공주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의 왕인 이웃나라 왕자라고 대답하고 말을 잇는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공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안개숲의 안개꽃밭, 그곳에 잠들어 계신 난장이 반달님이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무대 뒤편 장막 너머에 온통 새하얀 안개꽃밭이 펼쳐진다. 반달이는 아름다운 안개꽃밭에서 말없이 춤을 춘다. 춤으로 된 반달이의 말은 연신 "공주님 사랑합니다"를 속삭이고 있다. 관객은 이 마지막 장면에서 참았던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만다.

지난 해 초연돼 화제가 됐던 연극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는 올 4월부터 무기한 연장공연에 들어갔다. 여전히 주인공 반달이역은 최인경씨(25) 몫이다. 매스컴에도 많이 소개돼 제법 스타덤에 올랐음에도 그에게선 어떤 자만심도 찾아보기 힘들다. 예쁜 소년 같은 외모에 호기심 많아 보이는 큰 눈을 빛내며 그가 꺼내 보인 책은 장 자크 쌍페의 《라울 따뵐랭》(최영선, 열린책들)이다.

"쌍페의 책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놓친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해요. 사실 그림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저 따스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삶의 우스꽝스러운 면과 따끔한 비판도 들어 있죠."

이 책은 그의 팬이 선물했다. 속지에는 이런 글도 써어 있다. "자전거 타는 연



"사실 그림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저 따스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삶의 우스꽝스러운 면과 따끔한 비판도 들어 있죠."

습해. 추억처럼 모든 게 다가오게." 이 말은 그가 이 책의 주인공처럼 자전거를 못 타던 때를 빗대 적은 말이지만, 사실 이 책을 들여다보고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묘하게 비슷한 점을 찾게 된다. 원래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지만 작은 키 때문에 번번히 최종 오디션에서 떨어졌다며 그는 웃음을 지어보인다. 그의 웃음은, 자전거수리점 주인 라울 따뵐랭이 자전거를 못타는 자신의 결점을 아픔과 절망 끝에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모습과 어딘지 닮았다.

지금 최씨는 연극에서 충분히 매력을 느낀다. 관객과 함께 웃고 울며 교감하는 것이 연극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매력이라고 그는 말한다. 슬픈 짝사랑만 하다 죽는 반달이역을 하다보니 반달이와 자신을 동일시해 힘들 때도 있다. 그러나 아직 그는 반달이가 좋다. 이제 1년차 연극배우지만, 장 자크 쌍페처럼 그 자신도 사람들 가슴에 따스함을 주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 김장근 기자

# 출력

## 사료전지 출력기 2대 가동!

가격, 시간, 품질, 문제 없습니다

PDF 파일출력/다국어 출력(산돌다국어, 로알다국어)  
분판필름출력(사료전지)/대형드럼스캔/칼라복사  
대형칼라실사출력/칼라레이저출력

원색교정 흑백LP 흑백필름 CD백업 바코드파일 OHP필름 편집디자인 등

## 매킨토시·IBM 전문 종합출력

아래아한글, 워디안, 코렐드로우, 페이지메이커, MS워드, 파워포인트, 훈민정음 등

매킨토시·IBM 자동하리꼬미 무료  
아래아한글 등 IBM 분판필름 출력  
다양한 최신서체 출력

태광 수식서체, 다국어서체(로알다국어, 산돌다국어)  
2002산돌퓨전서체, 다양한 최신서체 보유  
(운, 국민서체, 폰트뱅크, 산돌, 소프트매지, 한양, 한컴 외)

24시간 출력 (일요일, 공휴일은 사전예약제)  
※ 「경문서체검본」 중점

### 신촌로타리



Since 1989  
**경문출력**

파일전송 <http://printok.webhard.co.kr>  
대표전화 3236-365 팩스 3330-208